

대중교통 요금 인상 예고...서민 경제 전반 '비상등'

기름값 폭등 속 버스·지하철도 동반 상승

광주 시내버스, 최대 20%↑ 구조적 적자에 10년만 올라 시민 부담 최소화 대책 검토

중동발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서민 경제 전반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광주지역 대중교통 요금까지 동반 인상 움직임을 보여 시민들의 부담이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름값 상승 이후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려는 시민들마저 비용 증가 압박에 직면하면서 체감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최근 광주시는 시의회에 '2026년 광주

도시철도 요금 조정(안) 의견청취의 권'을 제출하고 요금 인상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조정안에는 성인 기준 교통카드 요금을 현행 1250원에서 1500원으로 250원(20%), 현금 요금은 1400원에서 1700원으로 300원(21.4%)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소년 교통카드 요금(900원)과 어린이 요금(500원)은 동결된다. 다만 청소년 현금 요금은 300원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요금 인상은 오는 6월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며 5월 초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시는 시내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 밝힌바 있다. 10년 넘게 동결된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번 인상 조정에서

는 현재 성인 기준 교통카드 요금 1250원을 1500원 수준으로 약 20%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금 요금 역시 이에 맞춰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시내버스요금 인상 역시 시의회 보고·의견청취 후 5월 중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처럼 광주시가 대중교통의 요금 동반 인상에 나선 배경에는 구조적인 재정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시내버스의 경우 준공영제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를 시가 보전하고 있는데, 유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보전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 도시철도 역시 수년 간 운영 적자가 누적되면서 요금 현실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전기요금 상승, 유지보수 비용 증가, 인건비 부담 확대 등이 겹치면서 적자 폭은 매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시내버스와 도시철

도 요금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 추진을 결정했지만, 단일 교통수단이 아닌 '동반 인상'이라는 점에서 시민 체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두 교통수단이 동시에 인상될 경우 시민들의 '회피 선택지'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버스 요금이 오르면 지하철을, 지하철이 부담되면 버스를 선택하는 식의 조정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두 요금이 함께 오르면서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이 어려워질 수 있다.

요금 인상 폭 자체도 적지 않다. 하루 두 차례 출퇴근 시 버스를 이용하는 직장인의 경우, 단순 계산으로도 월 교통비가 수만 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환승 할인 체계가 유지되더라도 기본요금 인상분이 누적되면서 전체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시민들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동 지역 경제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유류 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통비까지 오르면 가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물가 상승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비까지 동반 인상될 경우 서민 경제 부담이 한층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김서정씨(35)는 "전장이 시작된 이후 기름값이 부담돼 최근에는 차를 두고 버스를 타고 다니기 직전인데, 요금까지 오르면 결국 부담은 똑같다"며 "가격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대중교통을 선택했는데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돈이 더 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이서은씨(23)도 "등교를 할 때 마다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이용하는데 둘 다 오른다고 하니 체감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진다"며 "한 번 이용할 때 200~400원 정도 차이지만, 이게 작은 금액 같아 보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다"고 토로했다.

반면 일정 부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정승연씨(42)는 "10년 넘게 요금이 그대로 있던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인상은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물가가 다 오르는 시기에 한꺼번에 올리는 방식은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시는 구조적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전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요금이 10년 동안 동결됐던 그동안 유가 급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운송 원가는 매년 상승해 왔다. 적자 구조가 한계에 다다른 만큼, 요금 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시기가 시기의 만큼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대책을 함께 검토하고,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금호타이어가 일반직 사원들의 시장 이해도를 높이고 전사적인 현장 중심 사고를 확산하기 위해 '영업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금호타이어, 고객·현장 중심 역량 강화한다

일반직 영업현장체험 실시...타이어프로 매장 방문

금호타이어가 일반직 사원들의 시장 이해도를 높이고 전사적인 현장 중심 사고를 확산하기 위해 '영업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생산 및 지원 부서 구성원들이 실제 영업과 유통 현장을 직접 경험해 제품 생산부터 유통, 고객 접점에 이르는 전체 '밸류체인'을 체감하고 조직 간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금호타이어는 최근 광주공장 화재 이후 생산 및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개선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이 시장 상황과 고객 니즈를 보다 직접적으로 이해하고, 품질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상대적으로 현장 경험 기회가 적은 저연차 직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했다.

영업·생산·지원 조직 간 이해도 향상을 통해 미래 핵심 인재들의 실무 감각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체험 프로그램은 지난 24일 1차를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총 3회차(회당 20명)에 걸쳐 대전지점에서 밀착형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대전시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세일즈 트레이닝센터를 방문해 지점 현황과 영업 및 신제품 교육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후 KTS 대전점 및 인근 '타이어프로' 매장으로 이동해 고객 응대 방식과 유통 구조, 현장 판매 전략 등을 직접 체험했다. 또한 현장 관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실제 영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시장 경쟁 환경과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일부 참가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품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으며, 향후 업무 수행 시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삼성전자, '삼성 브라우저' PC 버전 공식 출시

북마크·로그인 정보 연동...에이전틱 AI 기능 탑재

삼성전자가 모바일 웹 브라우저 '삼성 브라우저'의 PC 버전을 공식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 브라우저' PC 버전은 지난해 10월 한국과 미국에서 베타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선보인 이후 4개월 만에 출시됐다.

앞으로 글로벌 사용자들은 모바일 뿐만 아니라 PC에서도 편리하고 안전한 삼성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다.

'삼성 브라우저'는 북마크와 방문 기록 등 브라우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동되고, 모바일과 PC간 상태를 공유해 다른 기

기에서도 사용자가 기존에 보고있던 웹 페이지의 위치까지 그대로 보여주는 등 끊김 없는 연결성을 제공한다.

특히 사용자가 PC 버전의 동기화 항목에서 로그인 정보나 개인정보를 자동완성해주는 '삼성패스' 기능을 활성화하면, 안전하게 저장된 정보를 PC 브라우저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퍼플렉시티와 협업을 통해 '삼성 브라우저'에 에이전틱 AI 기능을 새롭게 탑재했다.

장승기 기자 sky@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주)호원테크

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주)호원테크는 설비기획,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2번로 178
☎ 062)940-8221 / FAX 0629-945-8415 / HP 010-3646-8311

'혼수 1순위'...삼성, '비스포크 AI 콤보' 출시

2026년형 일체형 세탁건조기...신혼부부 가전으로 부상

삼성전자가 세탁·건조 성능과 인공지능(AI)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한 2026년형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를 출시했다.

출시 2년 만에 '필수 가전'으로 자리잡은 삼성전자의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는 2025년 기준 전년 대비 약 40%의 판매량 성장을 기록하며 제품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혼수 장만을 위해 가전을 구매하는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가장 먼저 선택하는 대표 가전'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6년형 '비스포크 AI 콤보'는 세탁 용량 25kg, 건조 용량 20kg으로 일체형 세탁건조기 중 국내 최대 용량을 갖췄다.

또 이번 신모델에는 히터를 활용해 건조

초기에 내부 온도를 빠르게 상승시켜 효율을 높이는 '하이브리드 히트펌프' 건조 방식에서 한 단계 진화한 '프리히트' 방식이 적용됐다. 새로운 프리히트 방식은 세탁 탈수 단계에서부터 내부 온도를 높여 더 신속한 건조를 구현한다.

이 같은 강력한 건조 성능을 바탕으로 '쾌속 코스' 기준 단 69분 만에 세탁과 건조를 모두 마칠 수 있으며, 이는 전작 대비 10분, 2024년형 모델보다는 30분 단축된 수준이다.

이번 신제품은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의 한층 고도화된 '비스비'를 탑재했다.

사용자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제품을 제어하는 것은 물론 일상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이나 제품 사용법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에 대한 신혼부부 중심의 높은 선호도에 힘입어, AI 가전을 구매하는 신혼부부의 가전 구매 비용을 낮추고 실질적 혜택을 지원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진행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